러시아 군법사, 우크라이나戰 불자장병 지원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불교공동체 안에서 전쟁을 둘러싸고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자유 기고매체인 '글로벌 보이스'는 러시아 현지 불교계의 현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러시아 불자들은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믿으며 상당수가 몽골계 주민들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부랴트, 투바, 칼미키야의 세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러시아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부랴트와 칼미키야 당국은 2022년 비상 징집을 가혹하게 실시했습니다. 부랴트 현지의 활동가에 따르면 2022년 9월 21일부터 3일 동안 약 7000명의 징집대상자가 부랴트 군입대 사무실로 끌려갔고, 칼미키야는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 할당량을 초과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 군에서는 부랴트 출신의 바이르 바토문쿠예프 스님이 유일한 공식 군법사로 전선의 장병 불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바토문쿠예프 스님은 "나는 장병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복잡한 영적인 질문에 답하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임무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고 스스로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

러시아군, 야전에 사찰 설치해
장병 신앙 강화·조국 수호 임무
전쟁 속에서도 평화 반전 주장
불교적 가치 대한 고민 갈등도



야전에서 불자장병들을 위해 기원하는 바토문쿠예프 스님. 사진출처=글로벌 보이스

특히 지난해 겨울 러시아군은 전선에 2개의 야전 종교시설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한 곳은 러시아 정교회 성당, 다른 한 곳은 불교 사찰로 현재 전선에 불자 장병이 상당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러시아 불교승가의 대표자인 담바 아유셰프 스님은 "전통적으로 부랴트 족은 그들의 거주지에 사찰로 지정된 게르가 철수하지 않는 한 전장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며 야전에 세워진 사찰이 불자 장병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전쟁 속에 평화와 반전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불교지도자들과 불자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2022년 미국으로 망명한 부랴트 쿠렌다찬 사원의 방장 발단 바자로프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속에 전쟁은 들어있지 않다. 전쟁은 윤회의 가장 폭력적인 표현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를 돕는 모든 것은 악업"이라고 강조했다.

칼미키야 블교도 협회장이었던 텔로 툴쿠 린포체는 개전 직후 "정의는 우크라이나에 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와 국토, 진실과 헌법, 그들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반격을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성명을 냈다. 몇 달 후 린포체는 협회장직을 사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칼미키야 사람들과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자비와 사랑, 비폭력에 대한 용기와 회복, 헌신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야전에 있는 불자 장병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부랴트 출신의 한 장병은 "전선에 나오기 직전 스님들이 우리 캠프를 방문했다. 스님들은 우리의 안전을 기원해 주시면서도 우크라이나 군인을 보면 그 어떠한 분노나 살의를 느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들이 우리의 총에 맞으면 기뻐하지 말고 연민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것이 전장의 군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불교적 가치기 때문이다."

야전에서 불자 장병들을 지원하는 부랴트 출신의 올렉 남질로프 스님은 "이제 평범한 불자들은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나라의 필요에 의해 전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출가자인 내가 돕지 않고 등을 돌린다면, 그들이 악업만을 쌓을 것이라 말한다면, 그것이 출가자의 본분인가?"라고 깊은 고민과 슬픔을 내비쳤다.

보이지 않는 감마파로 염불 들어요

日 사찰, 감마파 스피커로 예불
인지 개선…고령자 치매 예방도



소리를 감마파로 변환시켜주는 스피커. 사진출처=워커플러스

40헤르츠(Hz)의 감마파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가 최근 주목받는 가운데, 일본의 한 사찰이 음성을 감마파로 변환하는 스피커를 예불과 법회에 이용해 화제다. 일본의 '워커 플러스'는 감마파 스피커를 도입한 도쿄의 신미츠인(真密院)에 대해 보도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소재한 사찰 신미츠인은 진언종에 소속된 사찰로 오래전부터 지역에선 '타마가와(玉川)의 대사님'이라는 별명으로 친숙한 사찰이다. 특히 이 사찰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영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지에서 많은 참배객들이 찾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치매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는 약 700만명(유병률 약 20%), 즉 5명 중 1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미츠인 측은 "정부발표나 뉴스 등으로 고령자의 치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치매예방 기원을 신청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신미츠인은 이러한 참배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찰 내에서 예불과 법회 시 방송에 사용하는 스피커를 감마파로 변조하여 출력하는 특수 스피커로 교체했다.

감마파는 40 헤르츠의 진동으로 울리는 주파수로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과 정서 처리를 반영하는 뇌파에 해당한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감마파에 노출된 치매환자들의 치매 증상이 완화 및 개선된 것이 밝혀지면서 실제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미츠인은 지난 입춘기도를 기점으로 법당내부의 스피커를 감마파 스피커로 교체했다. 또 점차로 경내에 다른 스피커들도 감마파 스피커로 교체하고 있다. 일본 불교계에서 경내 방송 스피커를 감마파 스피커로 교체한 것은 신미츠인이 최초다.

신미츠인의 주지 신포 류겐 스님은 스피커 도입에 대해서 "감마파의 소리가 인지기능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곤 매우 놀랐다. 눈치 채지 못하게 다가오는 치매라는 불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부처님의 자비하신 명훈가피와 동일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사찰의 유명한 영험인 치매예방과 감마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입이라 여겼다"고 도입을 결정한 계기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120년 된 마우이 日 사찰, 침식에 존폐 위협

해수면 상승·파도로 침식 가속화
흰개미떼 습격으로 구조물 부식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일본 불교 묘지와 사원이 바다의 침식 작용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있다.

하와이주에서 운영되는 독립적인 비영리 뉴스 기관인 시빌빗(Civil Beat)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알려진 마우이 북쪽 해안의 한 젠 불교 묘지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와 싸우고 있다"며 "무자비한 파도에 의해 묘지를 지탱하고 있는 충적 절벽이 침식되어 여러 개의 무덤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해안 인근에 위치한 파이아 만토쿠지 소토 미션도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며 "1906년에 일본 이민자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진 이 해변 사원과 관련된 건물들은 침식 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다와 인접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찰의 건물들은 패브릭으로 덮인 모래가 채워진 상자들, 즉 지반 보강용 용기들로 둘러싸여 있다. 침식 작용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흰개미떼의 습격까지 더해지며 사찰 구조물의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원은 앞서 2018년 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고용해 침식을 막을 방법을 고안했으나 기후적 요인을 막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진다.



바다의 침식 작용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한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의 일본 불교 묘지와 사원. 사진제공=시빌빗

사원 관계자는 "침식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흰개미가 사원을 망가트리고 있다. 이동할 경우엔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백 개의 묘지를 내륙으로 옮기는 것도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원은 현재 해변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금을 모금 중이다. 사원 관계자는 "해변을 복구하고 유지하는데 수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토쿠지는 지난 세기 동안 카운티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모래를 채굴하였고, 1946년 쓰나미로 인해 더 많은 모래를 잃었다"며 "현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여방재난관리청(FEMA)에도 원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북쪽 해안뿐만 아니다.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하와이 제도 전역의 해안가 건물들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시빌빗에 따르면 하와이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최소 13마일의 해변이 사라졌으며, 70%의 해변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마우이는 해안 침식이 다른 하와이 섬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오아후의 해변 중 40%가 세기 중반까지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 및 카운티 관리들에게 해안선을 더 이상 강화하지 말고 주거 시설 등을 내륙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 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